

鐵世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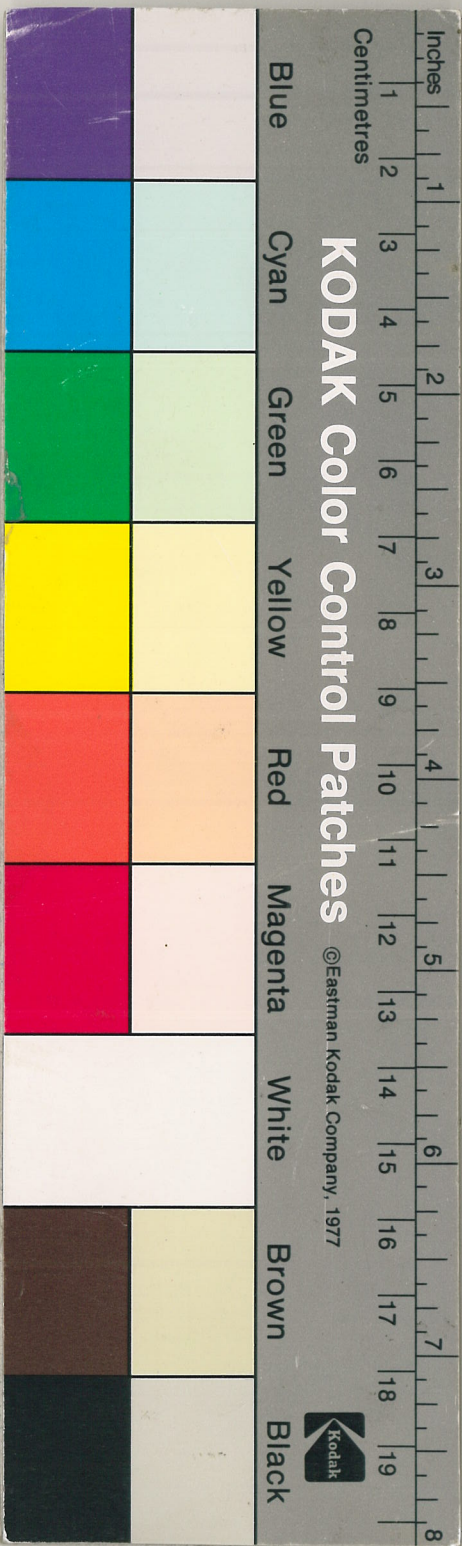
登錄	類號
分類	書號
分冊	書名
國籍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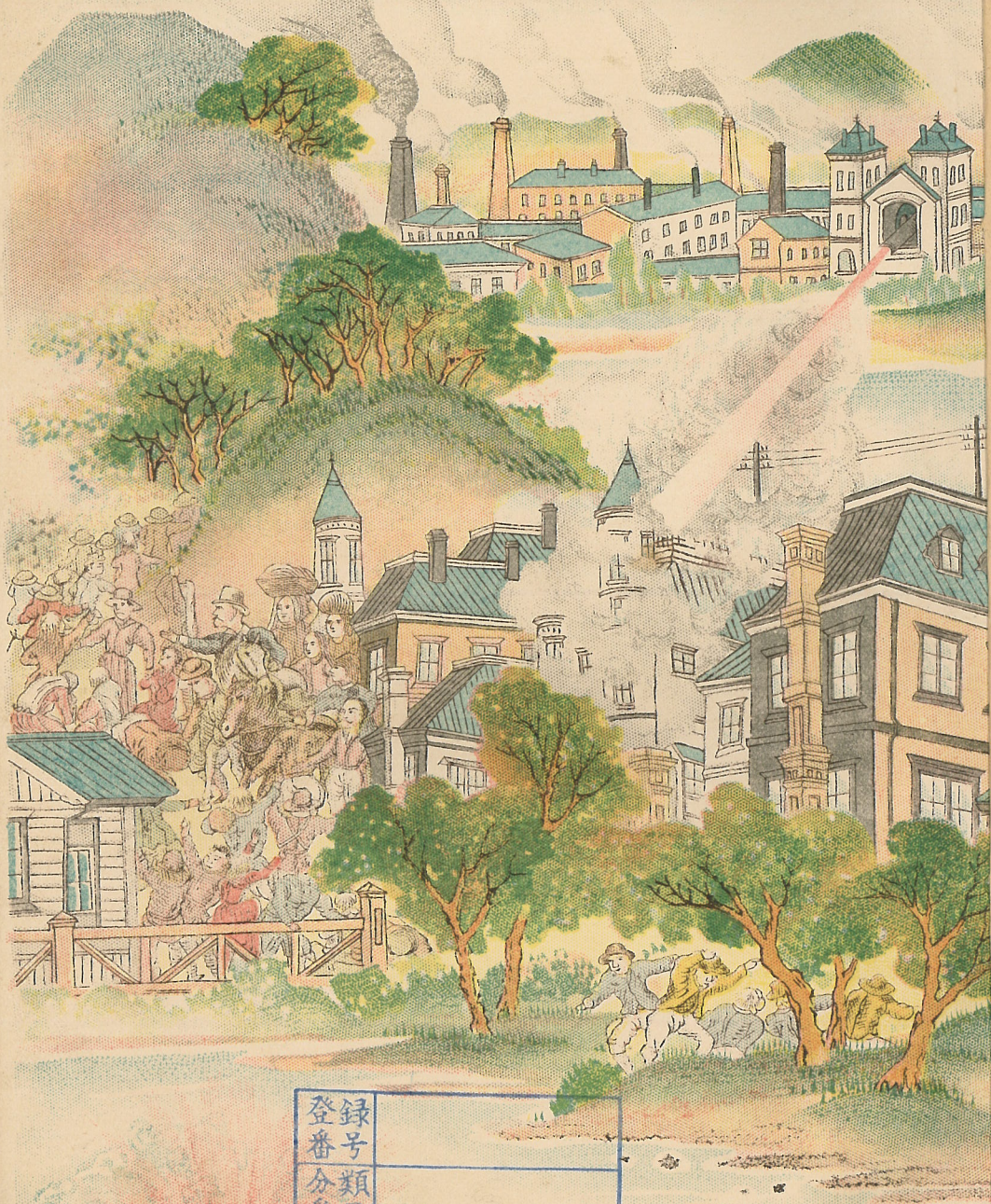
明德

30

1908



鐵 世 界



登錄	類號
番分	類號
番分	書號
圖	書號

과학 (科學) 소설 (小說) 렬 세계 (鐵世界)

데일장 하느로서 날아온 일억오백만원

석양은, 염수하고, 만물은, 을추하야, 슈간두육이, 은영하디, 괴화초가, 산만하야 쓸압해, 가득하고, 세죽념을, 빗기것어, 서안이정제하디, 나이, 오십여나된, 신스가슈염이, 희득희삭하고, 괴골이준슈하며, 안식이혼후하야, 저의심이, 미목간에, 은연하게되이니, 당세에, 유명하, 화공이라도, 그괴괴와, 이용을방블히, 그리기어려을너라

그신스는, 법국파려, 의학스좌선군인디, 영국발되돈부에, 와서, 위성스를연구하나, 이집은, 그신스의, 습식하느려관이러라

이석좌선군이, 디리신문장을들고보다가, 석안에노으며, 혼즈발로, 탄복하느말이

이러하, 신문지는, 응당영국중에도, 몇지안가리로다

그신문은, 이날, 발되돈위성회의에, 법국의원좌선의, 연설을, 게재하얏고, 기외에, 레오스, 탈란, 잡라스, 각신보에, 다이연설들, 시러시니, 이는좌선의학스가, 어제,

위성회의에, (사람이, 엿지하면, 죽지 않는, 술법을 잊을고) 훈문데로, 연설함의, 그 말이 절당함으로, 일시 좌중에, 회원들이, 절々 탄복하고, 룬둔전도 (倫敦全都) 각신 보관에 편견하니, 좌선군의 명예가, 일구에 굉장하더라

좌선군이, 맛춤, 각신문을 보다가, 창밖게 인적이느거늘, 창을 열고 보니, 시즈가, 명편함을 드리며, 엿지오되

엇던, 손임이, 선성을 비와 지라 오니, 청하야, 드리오릿가

좌선이, 명편을 받아 보고, 마음에, 의아하야,

이 사람, 날과 면분이 업는디, 엿지하야, 찻는고

하며, 명편을 저슴보니, 썼시되

룬둔스 사빅등, 구십삼호, 룰스, 겸, 공증인, 가본이라 하엿거늘, 좌선이, 더욱의 심하되

더구나, 룰스가, 나를 무슴일로, 찻노, 아모려나, 마저, 동정을 보리라

하교, 시즈다려

손임을, 드리오시게 하여라

릭이, 드리오논디, 안식이 온화하며, 정신이 씩々 하교, 나히, 삼십여나, 되엿더라

좌선과, 레하교, 좌명훈후

(릭) 나는, 룰둔빅등에, 잇는, 룰스가 본이라 하오, 선성은, 의학사 좌선군이, 안의 시오

(좌선) 그러소,

(가본) 그러면, 선성이 법랑송, 좌선씨시오

(좌선) 그러하오

(가) 그러면, 선성이, 본리, 디북평에, 사셨나요

(좌) 과연, 그러하오

(가) 그러면, 존공이, 애달이 좌선씨가, 안나시오

(좌) 하, 그러하거니와, 엿지하야, 무르시나오

(가) 그러면, 군의 도부께서도, 애달이 좌선씨라, 아니하오

하면서, 품의셔, 존, 찻지나를니여, 뒤적뒤적하디나

을소, 존공께서, 일천팔백 오십칠년 삼월 육일에, 파려타룬리정, 오십스호에서,

하세하시지, 안엇소

좌선이, 이 말을 듯고, 놀나며, 하는말이

손임이, 우리 집일을, 엿지이갓치, 자셰이, 아시느뇨

가본이, 그말, 디답은 안나하교, 신평되

일천팔백구십칠년삼월륙일에, 하계홍신, 좌선씨, 모친의, 일흔은, 가리룬산과 이인덕, 배니가룬산과이의, 딸이오, 미씨는, 일천팔백십이년에 죽고하고, 가리룬산과이의, 딸, 오라버니 잇서 일흔은, 경구룬산과이인덕, 데삼십륙경과디, 군악스를 단녔소

좌선이, 듯다가, 축약하여, 아모말도, 못하고, 우득커니, 부영이, 갖치, 한참잇다가, 다시말를붓친다

하, 나는, 우리쇼모집일를, 모호하여, 괴역치못호오니, 붓그러온말이, 오니, 우리집, 세계가엇지하여, 선성의게잇던지, 이렇듯소상이, 아시니, 니마음이, 엇더타, 홀길업소

(가본)군의, 다른형데즈미간, 누가또잇소
좌선이, 슬흔괴적을쓰이며

니, 아오홀아잇더니, 불행하여, 일적죽고, 이제, 우리부모혈육은, 나하나뿐이요
가본이, 허々우시며, 일변, 휴인의비회를, 위로할겸, 조롱격으로, 말을홀다
허々, 그티가, 후작으로, 각하를, 밋치리로다

좌선이, 이말을듯고, 더욱알길업서, 물그럼이, 직의모양만보며, 속중으로, 더손이, 아마광질이잇는보다, 엇지그리괴이흔, 말을호노호면서, 첫눈질하여, 손을보

니, 가본이, 그눈치를알엇던지, 허々우시며, 호는말이라

그러커니, 그티, 응당오날, 청치안닌손이와서, 이런말을졸, 몰나스리니, 날다려, 필연, 광질잇다호리로다, 그러니, 각하가, 몰나지, 후죽도, 엇으려니와, 또, 일역오백만원저산을, 엇갠시니, 엇더호뇨

(좌선)선성은, 무손말습이, 종々이러호시뇨
(가본)니, 각하를위하여, 일장리력을말호리다

각하의조모, 가리룬산과이의, 오라버니, 경구씨가, 삼십륙경과디, 군악스를단 일적에, 오리, 린도에서, 사난디, 그디방복스위랍스에, 과부와, 결혼하여, 살다가, 그과부가, 죽시죽고, 일절저산집물를, 경구씨가, 가지고잇더니, 그후에, 경구씨가, 또흔, 도산에도라가고, 가산은, 의례히, 그아들이치지홀터인디, 그아히, 또어려져죽고, 이씨, 이디방은우리영국이, 덤덤호고로, 그저산을, 영국정부에셔, 잠시보관하여, 그임주의, 정동혈축을, 기다리난디, 당초에, 저산슈익은, 이천오백만원일너니, 지금, 삼십여년에, 리즈를합계하여, 일억오백만원이되얏고, 니가, 또이저산을간섭하여, 조금슈구름을, 도라보지안나호고, 정동혈축을, 초지려호되, 몸이법률회스에, 미인고로, 결을이업섯고, 스름을넌나노아, 전심갈력하여, 룬산과이의, 세계를, 엇더스나, 또몇하여, 이혈축을차되, 호스름도, 청존

흔이 업고, 속절업시, 일역오백만원을, 국고에 잠겨두고, 다시 식리호지 못하니, 엇지가 석지안으리오, 일전에, 우연히 신문지를 보다가, 좌선씨의 권설이잇스미 존명을 알고, 이곳에, 특히 찾겨왔더니, 과연 각하를 맞났도다, 이복스위랍스의 후작과, 일역오백만원, 저산을, 각하가, 아니가지고, 누게가리오, 각하를 위하야, 만수처하하거니와, 각하이 제 쓸일이잇스면, 곧, 본부은형에, 수천만원이, 현 지하니, 마음되로, 추심을 것시오, 니가, 저조업시니, 다년보관하얏스니, 각하가, 못는 말이잇스면, 니가, 또세사하고하리니, 각하는, 그라아시오

가본이, 말을 맞치미, 좌선이, 더답할바를, 모르고, 침음하다가, 심두에, 말이 막혀 아모말도, 못하더라.

데이장 장수촌(長壽村)리상(理想)

가본이, 좌선을 찾져, 저산을 전호지, 나홀만에, 좌선이, 그 소천마국의게, 편지를 하얏는데,

마극죽하여, 복이, 발되돈에, 와서, 위성회의에, 참여호, 일를, 죽하—응당, 신문을보아, 알엇시려니와, 근일에, 혼자자놀날만호일이잇서, 죽하와, 지정간이기로, 이갓치전위하여, 한장글로, 고하노라, 복이, 의외에 린도후작과, 일역오백만원, 저산을 엇어느니, 복이, 외가혈속으로, 이저물을, 당연히 차지할바라도, 가위,

하늘이 주심이라, 그러나, 일로말미음아, 니일신, 의교만과스치를, 길으면, 나의본심을, 억의는바오, 또하늘에, 득죄할가 두려하노니, 이럼으로, 복이, 주소초략하야, 이일역오백만원저물을, 세계동포와, 함가지, 그리들누리고, 한스름의기욕을, 치오자안코저하노니, 아러하면, 죽하도, 응당아름다이내일지라, 복이싱각건디, 이가튼저산을 엇음은, 실로, 발되돈위성회의를, 말미암인즉, 이처치할도논, 맛당하나의저분을지혀, 잘쓸자라, 유일사이에, 처사에전과하고, 인사이현전하되, 발되돈에, 권설하든, 법국의학사는, 거의를형제하얏다하고, 모다불어하며, 식기하야, 평일, 반분씩지면호스람이라도, 닷도아와서, 도주도식하야, 기악과연적이, 밤낮으로찌느리아나하니, 이슈응호기에, 설로귀치안은지라, 복이자초, 이저산으로인하야, 그노에가될지니, 이럼으로, 부득불한계책을니여, 세상스름의, 사후을풀고, 나의청박호몸을돌녀, 석옹(塞翁)이, 의외에말을엇어, 도로혀지안됨을, 증게코저하야, 어제밤위성회의에, 이뜻을연설하야, 회원의찬성을구하엿시니, 복의말인으로, 조처할방침을, 독단키어려운지라, 그유히성각건디, 죽하는, 나와셔이갓호니, 나의오늘날이조처함을알면, 응당갓거하야, 크게찬성하리라, 어제밤, 권설일등을과록하야, 좌우에맞치노니, 바라건디, 거두어감하고, 또간절히, 상의할일이잇노라.

쓰기를 다 하고, 또 작야에, 연설전문을, 쓰로쳐 었더라.

제군제군야, 복이, 이번 하늘에서 내려온, 일역오백만원을 었으니, 실로 동덕박기
라, 복이 문산파이의, 일점혈맥이 잇슴으로, 사회법률이, 나의 차지함을 허락하되,
니스스로 칭가건디, 저 못볼안하노라, (청중이 모다 하는 말, 아니 오아니오) 이럼으
로, 니한 묘법을 생각하여, 이거익의 지물을 처치하되, 니일신의, 제일공평하고,
제일정대하고, 제일체계중성을, 보제하느니일에, 유익코져하노니, 거의하느니,
내게 위탁하심과, 나을 더욱도으심을, 저바리지안야, 이 지물을 헛도허, 낭비하자
안이 하자하오, (여러이 다 하느니 말, 드릅시다) 니가, 일신의, 가장적당하고, 가장
합의할바는, 나의, 본분의 후상의 쓰는 것이, 었덧소, (청중이, 다 좃소 좃소) 제군
네, 근일호적통계의 조사하바, 우리 인류가, 평균삼십이세를 사는디, 또 삼십하면,
겨오칠분을 산다하니, 이갓치, 삼십이세 삼분칠을, 사는 것이, 과연, 조물이 우리
인류의, 가장 긴명을 주었소, 만일 우리 인류가, 평균삼십이세 삼분칠의 서, 일분이
라도, 조금더 살면, 천의를 억의 인다하릿가, 나는 결단코 그러치안타하오, 대더,
인류가 양성술을 었으면, 백세도 살고, 후이 백세도 사는 자가, 저고로만코, 또 슈를
백세이상사는 스름은, 미양정신이, 확삭하고, 신체가, 건강하야, 몸실질병과 곤
란지익이, 그몸에 침로치안느니, 그러즉, 조물이, 이런 스름장슈하는 것을, 미워

하지안키는, 고사하고, 행복을 더 주어 가며, 장수하는 것을, 포장할 뜻하오, (여러
이, 다 손바닥을 친다) 이 세계에, 백년이 백년성준할 몸이, 근스히, 삼십이세 삼
분칠의, 쓰른 시간으로, 일성을 살어 보니고, 또 이 몇히 동안에, 질병, 우환, 비고하,
제반악증을 지느니, 그연고는, 무슨 사독인고 하면, 생활의 도를 었지 못하야, 신체
섭양하는 방법을, 모로는 싸늬이요, (여러니, 다을 소을 소) 니가, 지조는 업시느,
의학에 종스호지, 다년이라, 반성의 정력이, 여의, 다허비하고, 위성의 도를, 입술
이타고, 허가 말도도록, 짓거리기를, 몇천번만 번이로되, 진정으로, 니 말을 밋어,
섭양을 접합하게, 하느니 스름을 못보았소, (이세듯는 자가 다 동탄하느니 모양이라)
스름이, 리히에 밝지 못함은, 목전에 실험을 못보아, 그러함이니, 만일 현재 중증협
을 보면, 반다시, 결당하는 성질이, 복처로 복을 치면, 소리나는 것갓치, 싸를 지라,
니가, 미양병인을 대하야, 의식과 거처함을 의론하고, 항상 걱정하야, 었지하면,
하늘이나를 도아, 약간만의 지산을 주시면, 니 믿음되로, 나의 학술로, 경륜하느니바,
큰 집을 짓고, 의복과 식물을, 정결하하야, 수천만인이, 니 경륜을 알편도에서, 거
쳐하야, 신발명호의, 의, 식, 주, 에 먹고 입고 쓰고 하야, 무량한 수를, 누리게 할고하
야, 이마음이, 뉘슈에 박힌지, 여러히로되, 한번도, 실험할 날이 업신즉, 바다우의
연고갓치, 공중에 루각갓치, 잡을 모가 었더니, 의외에, 일역오백만원이 성겨, 니

장중에 드러왔사니, 몇히올고심경영양은, 목적을달하고, 몽중갓치망상양은, 큰 집과의식쥬, 개량할방침이, 인제성스를할겜쇼, (일시에, 만장이떠들며, 곧압소 장호오) 그런즉, 우리인류, 거처할곳을갈하여, 몸실명이류전치안코, 풍토귀후 가, 적합할곳은, 아미리씨의, 서안이, 천하에, 제일이니, 그곳에다, 나의적년회 슈중에, 그런바, 본보기동리을석로, 설시할조양오, (만화가, 환히양야, 우리의 학사만제) 이연설을, 당시에, 각회원이모도찬성하고, 또문돈의학협회에서, 이 말을듯고, 제게인류와, 의학사회에, 대단히유조양다양야, 포장을엇던노라, 그러나, 장수촌을시로짓는일이, 대단히심력을, 허비할지니, 청컨디, 속히형장을 초려, 나와아미리씨에, 가기를바르노라,

좌선이, 쓰기를다양야, 봉투에너코, 것면에쓰되,

법란서과려부제사리정, 삼십이호, 고등기예학교, 마극포스밍, 선성 계

하라양여, 우레등에너엇더니, 이날밤십점중에, 과려우체국에이르러, 마극의집으로, 보너엇더라, 마극이논, 원티, 아이사사스름으로, 나히, 열두술에, 죠실부모하고, 도회학교에, 드러가, 심상교육과를공부하고, 약간, 부모유산이잇사나, 강건지족이, 업고, 법덕, 전정에, 덕국병이, 과려를, 에우거늘, 마극이, 과려부중에잇다가, 동학양은, 제인으로, 의용덕를조직양야, 덕병과접전양다가, 좌슈에창을마져, 병

원에 드러가니, 이씨좌선은, 병원에, 직원이라

마극이, 어린서성으로, 용의빅비양야, 창포를무릅쓰고, 죽기를앗가지, 아니양야, 추의가, 스름을감동양는지라

좌선이, 마극의, 이리함을보고, 괴루이녀여, 구진히, 치료양야, 죽사나앗더라,

얼마아나양야, 법덕야, 협약하고,

마극이병이, 나야, 병원에서, 나와보니, 전일, 성장양는, 아이사고향은, 덕국인이, 덤령한지라, 과국산하에, 풀과나무는, 알미업서, 의구히, 동풍에, 춘석을씩엇사나,

마극은, 마극의빅성이되야, 고국의남은터를, 상심하고, 고향에도라갈, 마음이업는지라,

마극의스정이, 그러하고, 혈々단신이, 의탁할터업스며, 좌선이, 역시고독양야, 다른천처이업고, 병원에서, 마극의, 충의를감격양엇더니, 또마극의, 지질이, 충민함을보고, 더욱사랑양야, 집에두고, 여러가지, 과학을교육양니, 리과와, 산술등에, 정심양야, 다른학원들이, 서로지못양더라

좌선과, 마극이, 정세서로, 단혈양야, 피초골육갓치지니다가, 좌선은, 영구발되돈으로오고, 마극은, 본국에잇서, 이씨좌선의, 편지를보앗더라

그편지와, 연설전문이, 일시에, 또 전파되야, 향로밤에, 던보가 구라파각국에, 퍼지고, 잇는날, 덕문으로 번역하야, 사돈신문지에, 올으더니, 뜻밖게, 혼스름이 되던 다

데삼장 일이란, 삼림중의서, 괴물하나이, 뛰어나온다.

중부일이만야라부, 대학교수, 화학스인비라, 향논자이잇스니, 신데절대하고, 슈족이 추악하며, 억기를 웃속하면, 저가 웃손속고, 눈을 불읍쓰면, 불덩이가, 도는듯 하야, 아모스름이던지, 한번보면, 퇴수에스못쳐, 밤이면, 가위늘녀, 짐을 못잔다향논, 위인이라

이날, 맛춤하인이, 사돈신문지와, 서함두석장을드리거늘, 인비가, 벽상에결닌, 황금시종을, 거들떠보더니,

오늘, 우편이엇지하야 더되고, 오후에부천우신이, 의례히여섯점삼십분이면, 너집에오는데, 시방여섯점오십오분이나, 되었서니, 무손사뵈인고, 초후는, 여섯점삼십분에, 신문과서찰를, 서안에두지못하거든, 너압해, 다시되이지말어라, 향면서, 눈을출기고, 하인을보니, 하인은, 제퇴가잇시나 업시나, 인비의, 눈흠기는 서슬에, 황겁하야, 아모말도못하다가, 겨오입을떼여, 일병어리말로,

쥬인, 저녀, 진지..... 안줍스시.....

인비 또 쓰짓는다.

너, 향상일곱점에, 석반을먹는디, 아즉사분삼십초가, 남엇서니, 네가너집에잇스지, 삼쥬일이느 되었는디, 날마다보는일을, 또몰나서, 이런잔말을하느나, 너김물너가거라,

향고, 신문과서출은, 보지도안코, 붓을싸여, 글초하나를닌다.

그글초는, 리일출판호, 성리학협회에, 잡지론설초니, (법국스름의호, 리상호괴운은, 조상으로부터, 류전독의서, 나느비라)글제를향고, 여덜줄을쓰고, 아홉줄쳐, 첫저를쓰는디, 벽상에종소리, 쌍쌍일곱점을치니, 붓을더지고, 식당으로드러가더라

인비, 밥을먹고, 다시글초를, 맞춰맞히

화학스인비

라쓰고보니, 정이십이점오분중이라,

이에, 인비가, 의즈를난로것히, 온겨노코, 신문을본다, 신문제일면광고로부터, 이면삼면을차례로보다가, 홀연, 눈을썩바로쓰고, 혼곳에만, 정신이들어, 한번보고, 두번보고세번네번열번씩번, 이되도록, 눈동즈가, 신문에박였는자, 신문이눈동즈에씨엇는지, 저도정신모르고, 혼즈말로,

륜산과이, 륜산과이, 륜산과이,

몇번하다가, 의즈에, 몸을의지하야, 눈을감고, 쌍쌍하다가, 다시아러는며, 벽상에
흔, 소년부인의 화상을니려보니, 문지가, 가득하여, 글즈도, 아니뵈이니, 그벽인비
마음에, 급흔법이, 화상은, 누화상이던지, 글즈만촉는다,

시로입은, 후룩고투쇼미로, 문지를룩々러려, 불빛해, 밧삭 드러디이고본다
랄란성인비부인, 본성은륜산과이, 일천칠백구십이년에서

라하엿거늘, 도로거러두고, 이른날시벽에, 야나부에서, 륜돈으로가는, 급흔화거
를라고, 바로가본의, 집을차자가더라,

인비는, 속으로가본의, 집을향하고가는, 다른스름보기는, 무슴일로, 어디로가는
지, 인비의, 형석이황々흔것만, 보앗더라,

데스장, 살손인종과, 라전인종

인비가, 바로가본의집으로가, 가본을보고, 인스흔마디업시, 곱질문흔번을, 룩々
이흔는모양이라,

인비, 나는륜산과이 랄란성부인의, 손즈오, 랄란성부인은, 즉경극씨, 맛누의신
디, 이제, 그유산을엇엇다흔는, 쇼위별국의학스좌선의, 쇼모는, 경극씨의, 즈근
미씨라, 우리쇼모랄란성부인이, 일천칠백구십이년에, 우리쇼부목이경의, 부인

이되시고, 경극씨와, 우리쇼모성시에, 왕복셔출셔장이, 니집에잇스니, 증거가명
확흔지라, 경극씨가니게는, 좌선에게는, 동시진외종쇼로디, 우리쇼모는장녀가,
되시고, 좌선의쇼모는, 츠녀가되니, 천속은, 피츠일반이는, 장유로말하면, 나의
집이맛이되니, 엇지하야, 그유산을, 좌선이, 가지리오, 그디는질셔를문란케말
고, 일억오백만원을, 도로츠져, 니게돌녀보니라,

하면서, 얼굴이, 불으락푸으락하며, 숨이턱에닿는지, 썩썩거리니, 가본이, 어히업
셔, 전후말을다하교, 또일으되

좌선이, 임의이저물을받앗시니, 필연무단이, 썩앗기지, 안니홀리라하나, 인바
는, 고집하여, 정소지판가지홀지라도, 이저물을찾지못하면, 밍썩코, 도라가지,
안니하리라하교

좌선은, 이저물을, 혼즈쓰지안코, 일단즈의심으로, 밧셔조인광좌중에, 선포하
야, 도로에과다하교, 원건에류전하야, 무인부지라, 일쇼에, 졸연히상정하는지
잇쓰니, 사름이, 후나더러, 모칭하얏다하면, 엇지명예에, 손상치안으리요하야,
양인이상지하미, 가본이, 좌지우지하기어려와, 무한근심하더니,

그일억오백만원맛흔, 은형총리가, 이말들듯고, 맛츠니, 귀결흔날이업실가하야,
문져좌선을보고, 이로되, 니일전에, 군의련설를드러거니와, 이가처거대흔저산들,

군이, 홀노 쓰지 안코, 장축,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디, 쓰려하니, 그성스함을, 뒤아
 니, 용축하니 오, 이제, 난디 업는일이 만총람중에, 홀피물이니 다라, 군과상지하려하
 니, 군의, 의향은 정소지관하면, 종당득송하겠시나, 유々한세월에, 귀결이묘연하
 고, 인성수십년광음을, 랑비하리니, 이는니가, 전감이잇노라, 룬돈에, 빅만원유산
 을, 양요대변하야, 삼십구년을, 미결하다가, 급기지관이귀당되야, 필경혼스름이,
 초지훈일이잇스나, 저간에, 왕리로비와, 옥바라지며, 각처정비, 청전에, 빅만원이
 다독아, 필경부족되고, 혼집은, 제궁력전하야, 당피하고, 말앗스니, 이런송스가,
 십년이십년, 쓸기논에스라아는지라, 군이만일, 괴물과상지하다가, 천연세월하야,
 군이, 빅세를향슈홀지라도, 평싱고심연구하던, 의학은효력이, 업슬지라, 괴위, 군
 의조모와, 저의조모가, 형더간이라하니, 님, 우견은, 이지산을난호아, 오천만원식
 가지고, 남저지오빅만원은, 다년이일에딘심하든, 가본씨를쥬어, 슈공이나하면,
 엇더하뇨, 군의, 전일발론은, 장슈촌건축홀스에, 오천만원이부족하나, 만일제관
 곳시작하면, 이것축초업저지리니, 장슈촌이, 그림에썩이나니되깃쇼, (좌선) 내,
 무단이, 형제하야, 엇지람심이잇서, 부족다하리오만는, 저장슈촌건설홀일로, 슈
 천만회중에, 발론함을이제뉘웃치나, 미지못하니, 무슨면목으로, 제군을다시보리
 오, 그러나, 이일에과히방이나, 되지아니면, 님또무엇을앗기리오

은형총리가, 이말을듯고, 대허하야, 즉시인비에게, 동하니, 인비, 또홀물너나라
 인비가, 오천만원을가지고, 집에도라와, 서지에홀로안져, 무어을궁리하는지, 슈
 십일을, 집안스름이, 볼수업다하더니, 홀련, 대학교슈를청원하고, 여간친구를작
 별하며, 나는, 아미리싸에, 류람을가노라하고, 일조에, 형장을츄려, 길을써는가더
 라
 그궁리함은, 무엇이냐하면, 좌선은, 오천만원을가져, 인명장수홀, 목덕으로, 장슈
 촌을설시하는디, 저는, 오천만원을가지고, 장슈촌반디하기로, 슈십일을궁리함일
 니라
 반디는, 엇디케하느냐, 무를디경이면, 인종을멸망하야야, 장슈촌을반대가되리니,
 그러면, 제나라디방의인종도, 멸망케하리오, 이는인비의심스가, 지극히, 참독하
 니그말이
 라전인종(법국으로서, 이대리, 서반아, 비리시, 등국에퍼전인종이라)은, 점々
 쇠하야가고, 살손인종(일이만으로서, 서전, 라위, 영국등디에, 퍼전인종이라)
 은, 점々성하야가니, 성쇠지리는, 런던의대법이요, 공심이어늘, 이제좌선이, 라
 전인종을위하야, 런던의, 대법공심을엮의고, 쇠하야가난, 인종을장슈하랴하니,
 제엇지조물의본의가, 라전인종을, 장슈케홀년지, 알며, 또엇지조물의본의가,

살손인종을, 번성케 하야, 라 전인종이, 그림자도, 업시 전 세계가, 살손인종이 되
 게 할는지, 알엇시 리요, 저의 법국서, 자랑하는바, 데일등인물라 파류의, 숙달이,
 하나는, 영구에 좁혀가고, 하나는, 우리덕구에 갓치여, 살손인종의 노래가, 되얏
 고, 아라스가, 세계강국이라 하여도, 가슬국인종이, 오히려, 초어를속에, 어러죽
 게, 되얏시니, 이들을 수십년전에, 지은고로, 이제, 이제, 바다에는 영국이오, 류지에는 우
 리덕국이, 세계에 피권을 좁은지라, 이럼으로, 우리 살손인종은, 명세코라 전인종
 에게 양두항지안을지라, 저좌선이, 만일 살손인종가 트량이면, 내저외이다지, 닥
 투지안나 항겟시되, 저는 법국스름이어늘, 그지들로, 장수초을 건설하야, 라 전인
 종을, 번성케 하라 하니, 우리일이 만인종에, 날가튼지 잇지, 가만이 안저보리
 오, 다형이, 저와 오천만원을 논아가 졌시나, 나는, 이지물로 좌선의 일을, 방히하
 고, 피어히, 살손인종의 의는, 인류의 뿌리를, 싹엇시면, 런디의, 뒤법공심을, 몸
 바는 것이오, 々천만원을 잘 썼다 할지로도
 이렇듯, 심스를 먹고, 궁구히, 생각하엿더라

데오장 외에 피혈주의(鐵血主義)로런철존(쇠다로는존)을 건설함이라

합중국서안은, 바다심라를 쳐하고, 아란궁하슈남편을 당하야, 산명슈려하고, 경외
 절승하니, 아미리사의, 데일가려할곳이라, 오년간에, 형티가 변하야, 전일에, 울々

청々하든봉만이, 비도쉴코, 등도쉴코, 가로쉴코, 세로쉴어, 무수한구멍이, 모도털
 광탄광이오, 예셔뚝썩, 제셔뚝썩, 쿵쿵광々모도, 쇠다로는소리며, 석탄연기, 탄손
 와스는, 후산천과, 타세계가 되얏시니, 이는 덕국 화학스인비의, 건설은, 런철존이
 라

인비는, 세계에 데일가는, 강철데조가라, 그대포는, 동서양각국에, 다시 업시크고,
 제조방법이, 극정극교하야, 사름마다 놀나고, 탄복하니, 이는 다섯히를고심하야,
 좌선군의 장수초을 받디하고, 인종을 소멸할 계획으로, 다년 화학공부하다가, 저의
 스를너여, 비상한덕포와, 탄환을 지엿고, 또포신을 크게 할스득, 목에가 더욱가 비워
 스용하기, 곤란치아나 하며, 지어철물과 미탄은, 본초에 광산이 쪼지하야, 풀무소
 용을의쳐에, 구항지안이 홀죽, 그제조하는법을, 뒤알지 잇시며, 초문밧게스면
 으로, 돌흔담과 벽을 들너, 직원과공인의, 출입이 엄밀하야, 슈관하는스름의공문
 아니면, 초안에 막우드리지안코, 초안에 흔번드러가면, 각기제소임을 거행하는의
 의는, 반보일보라도, 다른처소에 드러가지 못하니, 그법령이 각박하고, 비밀하더
 라

이셔는, 십월중순이라, 런기청량하디, 초문밧게, 혼소년이, 다셔러진마고즈에, 깃
 도업고, 단초도업서, 삼시위로, 로을센아, 열기설기잡아미고, 검정라스홀티바저

천아옹보선에, 누른구두에, 증을춤사박아, 거러가면, 뼈적사사소리가, 허릴업는 로동자라, 보는사람마다, 촌안에공인이, 잠시휴역처로, 나온줄알더라

소년이, 본리영민한야, 련철초에규식을, 익의아는듯시, 조금도, 서슴지안코, 또공 문훈장을, 어디엇어던지, 손에가지고, 첫침업시단닌다

소년이, 촌문밖계섯더니, 구척장신에, 순덕가러세천듯한순경이, 단총을들너메고 두눈을뒤글리며, 나오거늘, 소년이, 천연히공문을쥬니

순경이바다보고, 머리를끄덕이며

오, 네쳐쇼가, 심이구아흠지길, 철벽스십삼호플무간이다, 네이문으로드러, 바른 편으로가면, 큰길이요, 돌비가잇서, 심이구라석엿슬거시니, 그곳에가, 구당을차 지, 이공문을드리면, 즉시드러갈것이요, 네가, 이왕이촌의규칙을알거니와, 만일 그릇한야, 제역쇼외에, 다른역쇼로드러가면, 즉시촌밖그로쫓겨나와, 다시드러가지못하리니, 조심한야라

소년이, 이말되로, 문에드러, 바른편큰길로드러가, 서서히숨혀보니, 좌우에놓 혼백이모다, 길받이나되고, 벽밧헤흠을쳐, 슈구로물이흘너, 이도량이저도량으로동한야, 나가고, 멧십구, 멧백구에, 모다놓은벽과갑흔도량이정사한야, 조금도, 경축할디업시니, 만일경과구를타고, 촌중을구하여보면, 응당바독관, 갓홀지

라

심중에, 총탄한며, 차즈드러가니, 모구모구라, 혼표석이, 처사에차례로섯는지라 이리더리보며, 가다가, 홀연십이구표석이니닷거늘, 문쳐서사보나

이곳에문금이, 처음문과갓흐나, 군기가진, 건장한순경은업고, 다만신례불구한 늙은슈직이잇거늘, 공문을넘겨주니, 슈직이의즈에서이러서는디, 왼편다리가, 무릅아리로, 도막이나고, 나무로썩가, 다리를이어, 절누거리고, 가슴에구리괘를찾 시니, 썼시되

공로를포상한야, 흠금을스급

이라하얏더라, 공문을받다, 인을쳐서쥬며

네, 이리드러, 왼편아홀지길로가거라

소년이, 사례하고, 드러간다

이곳은, 본촌니부라, 처사공역장과괴계장의, 소리가, 썩들기시작하는디, 정신을 치려, 아흠지길을찾자, 철벽스십삼호문괘를보고, 문에드러서니

훈졸이, 인도한야, 본창총리압히, 나아가나

총리, 소년의공문을바다, 먼져인장을보고, 다시숨히다가, 탁상에놓코

(총리)네가, 플무장이되기를원하느냐, 나히얼마나되며, 괴질이약한지안으랴,

(쇼년)과연약질이오나, 어려서부터복역하와, 시방나히서른술에, 두술이못츠
오며, 슈월간에풀무를잠심하왔시니, 녀려마음소셔

쇼년이, 이적은극히련속하, 일이만의말로대답하와, 조금도, 일여오며업드니, 말
뭇소리달으거든, 총리가, 눈을번쩍뜨며, 혼참보다가

네가, 아이스사스름이아니나

다른사름의, 지둔호성질갓흐면, 덜마집는디, 녀어발셔얼골에사식이, 탈로하겔지
마는

쇼년은, 원리영민호지라, 얼는우으며

쇼조는, 서서티칭이올사다, 공이, 밋지못하실터이면, 이것을보십시오
하며, 품에녀히권을녀여, 드리는지라

다히이총리가, 김히숨히지안코

그러겔다, 네오늘부터, 이창내의셔집역하되, 극진히쇼심하와라

하더니, 손, 상조의셔, 피하나를녀여가지고, 못되

(총리)네일홈이, 무엇이냐

(쇼년)에, 약한이라하는이다

총리가, 붓을들고, 약한의일홈을쓰며

네, 들어라, 이피에, 오만철천구빅삼십팔호는, 즉네호슈라, 본촌에집역하는공
인이, 다일영호호슈잇는니, 이개업스면, 드러오지못하코, 미일철점중에, 본구
문밖게와셔, 이피를중험하코, 본창스즈방에와셔, 호목상조잇시니, 상조중에
호슈를맞쳐보고, 역쇼드러가기전, 심분중에니게와셔, 다시검샤를받은후에, 가
지고, 역쇼에드러가, 하오철점중에, 각공이허여질씩, 역쇼문어구에, 우체등갓
흔것이문이, 절로열날것아니, 네이쇼희를그통에넛코, 물너가라, 이는미일갓
공인의, 근만을힘시하는바이니라

(쇼년)가르치신디로, 봉히하려니와, 곳오늘부터, 이촌에류련하오릿가

총리, 아나다, 조기는, 촌밖게나아가조고, 먹기는, 본촌공인이면, 염가로팔게하
얏시니, 네가혹쓸일잇스면, 그곳에가셔, 네피를보이고, 네신슈금을타가며, 신
슈금은미일, 일원석이니, 만일근실하야, 거히호지삼기월이면, 차례로증가하는
니라

(쇼년).....

(총리)네오늘부터, 곳역쇼에가려는나

(쇼년)그러하겔습이다

(총리)그러면, 오날은, 신슈금을반만, 주는것이니그리알어라

(쇼년).....

총리가, 이러나, 공장으로도 드러가니, 약한이 쓰러간다. 좌우양편에, 큰집이 옹호하고, 동근구리동의, 연기를 훑々 썸는 것이, 입은 혼저 남짓하고, 두줄로 일망무전하게, 큰스찰에, 기둥 드러서듯, 항구부두에 돛뒀 드러서듯, 항고 공장동편에, 괴기로 만든 렬츠가, 속렬을 실어, 이 공장에서, 더 공장으로, 운송하니, 두수레가, 인력을 허바하지 안코, 락여부절하여, 왕리하고, 급기공장에 드러가니, 큰쇠독이 논독아나에, 성철을 너허 녹은 후에, 공인들이 조로긴, 곰의 손 기계 일함으로, 쇠독은 물을 휘々 저어, 혼몽치를 민드느니라, 종괴々 관의 고등을 들면, 쇠몽치 절노나와, 만장중에 불빛치오, 각공인이, 전신을 가족으로 쓰고, 머리에 투구 갖흔, 쇠두검을 쓰고, 두눈만 닐어 노코, 손에 가전맛치로, 일시에 달녀 드러치니, 별갓 혼 불뚱이 뛰여, 번기 갖치스면으로 흐터지고, 쇠가점々 식어지며, 빛이 점々 검어지면, 다시 노코, 녹여 닐야, 삼스츄들이 갖치하니, 그 쇠가 엇지, 정고치 안이 항리오

쇼년이, 이를 보고, 탄상함을 마지 안타가, 생각 건디 내기 위이 곳에 와서, 혼저 조도, 총리 압히, 보이 지 못하면, 본경 료을 이 로 지 못하리라

항고, 웃웃을 벗셔 노코, 곰의 손을 잡아, 풀무 것히 셔셔, 혼점종을 로 동하니, 얼골이

복승아, 익어가듯 하며, 괴력이 시진하더니, 두점종이 되미, 얼골에 청석이 돌고, 스시나 무렬듯 하다가, 쌍에 나가, 널부러지니

(총리) 네가역스에, 익지 못하도다, 내 앓가네, 괴딜이 약하다 하엿더니, 과연 그러하구나, 네가, 정감당치 못하면, 다른 공장에, 료식이 좀 박할지라도, 공역을 밧구어, 네 몸을 구々 혼신 슈금에, 팔니 자 말어라

약한이, 별덕이러니며,

안이요, 안이요, 니가 그 전부터 이런 병이 잇지, 미양 발작하면, 혼두 시간을, 오한 광열과 슈죽 전이 나옵니다, 그 시간이지는면, 즉시 낫스오니, 녀려 마옵소서 항고, 다시 달녀든다

(총리) 이리 오니라, 내너 다려 말함야 하더니, 약한을 다리고, 다시 본창스즈 방으로 가서,

(총리) 네가 이 쇼임을, 감당치 못하리니, 강착하 지 말고, 너의 근심함을 알거니와, 각 공창에 공인을, 구하느니라, 너를 환방하여 줄 것이니, 네 쇼장이 무엇인고

(약한) 곰압심니다, 내과연 쇼요 혼공가를 담고, 괴질을 즈량치 아니 하엿시니, 황송하오이다, 그러하오니, 내 쇼습은, 물건 본은 알을 약간 아오니, 만일 물건은 부어, 만다는 공창에, 옮겨 주시면, 지극 감행하겠심니다.

총리가, 고기를 쓰덕이며,
네, 요형교등을 잘 맛났다. 맛춤공인의 칼이 있고, 또네가 공자에 열심하니, 내쥬션
할야봄아.

고고, 이러나, 전화괴것히가서, 고동을들어, 변호를맞치고, 한참을문답하더니
(총리), 다형이, 삼십륙구에, 너를천거하였으니, 속키가보아라

공면서, 먼저번에, 익한유엇던, 공문을너여, 두어말를더쓰고, 린을쳐쥬더라,
약한이, 바다가지고나와, 삼십륙구를쳐가니, 일레규축이, 십이구와다름업고
그공장총리도, 또한약한을잇살고, 공장에드러간다

(총리) 이공장은, 본초중에, 가장적은공장이니, 네착실하면, 이다음에, 큰공장
으로승총하리니, 아모조록, 극진히착심하라

약한이, 머리를들고, 먼저공장을보니, 가장적다하니, 공장이, 가로삼십간이요, 기
리로팔백간인디, 좌우양편에, 후도간이, 육백여키요, 공장중앙에, 쇠물로부는, 대
포젓는본보기가잇고, 그것히, 큰쇠갈고리가잇서, 대포를지으면, 그갈고리에, 고
동을들어, 달아올너, 렬츠에잇고, 다른공장으로보너더라

약한이, 맛춤각공이, 쉬는씩를만나, 공장근처에안젓더니, 홀연홀소리나며, 방울
찬, 슈빅공인이일시에일어나, 레슈장단이, 서로갓흔스름이, 들식들식쌍을지어

쇠몽둥이를두러메고, 본보기것히, 돌너시고, 공스는, 우수에호각이요, 좌슈에한
넬표를가지고, 그것히가서, 두루넬허보더니, 호각을입술에디이고, 홀소리를써
의부니, 각공인이쌍々으로, 압셔지도안코, 뒤셔지도안이하야, 호각소리를짜라
슈빅도간아를, 일시에들어, 탕구에부으니, 검은연기를쌌으며, 쇠물이살어, 일제
히본보기에홀너드러, 대포가되는지라

슈빅명공인이, 홀공스의지휘를받아, 추호도감히억의지못하고, 또슈빅좌, 괴계며,
증고녀, 전기가, 정제하야, 홀호각의, 절조를맞쳐, 쇼공도추축이업시니, 이는전세
계에업는, 교술이라

약한이, 것히셔々, 보다가, 총찬하는소리나오는줄, 깨닫지못하고, 연방총찬하더
라사름이지조잇서, 남의지조가져보다, 나은것을보면, 성벽도나고, 몸이간절거
러, 겹디기어려워함은, 예후가의성정이라

약한이, 눈설미싸르고, 마음이영민하야, 다른공인보다, 부즈러니역스를하니, 총
리가, 무슈히총찬하더라

각공인이, 훗터지니, 약한이, 간밤에즈든려관으로온즉, 석반이발셔되엇더라
약한이, 두어술써서, 첩고만하고, 창을의지하야, 안젓시니, 스면이적々하고, 총성
은죽々홀디, 홀점던기등빛치, 류리창에비최여, 창호가조료하더라

약한이, 다시 몸을 일여, 품의 서강털쪽과, 도간이 새여 진부스러이 되니, 등불에 들
고 보다가, 또 슈대속에서, 공척을 되여, 법문으로 기록한다

런털춘에, 쇠다르느법과, 물건부터 법은 파이 보회스와, 과히다를 것이 업시되, 공
교훈술법은, 공스 슈중에 호각이, 일명호군호가 되니, 춤과 묘한 일이라, 더일이 만
인이, 음악을 절기느 성질이 잇서, 공작할 때에, 일시에 히득호야, 일호초축이 업심
은, 전혀 호각의, 음향 절주를 맞치니, 만일이 러한 기술을, 질박한 영인다려, 하라
하면, 음악의 틀려도, 모로거든, 엇지 절조를 맞치리오, 우리 법인은, 비오랴면 쉬
우니, 우리 법인도, 천성음악에 밝으며, 또 춤추고, 뛰노느니, 능호지라, 그런즉
런털춘주의가, 일이 만사를 만쓰고, 우리라 전사름은 전금호니, 비밀 계획이 잇슴
을, 가히 알지요, 오날내, 목도호바는, 심이구와, 삼십륙구, 두 곳뿐이니, 이후에
엇지하면, 다른 처소에 드러가, 이에서 더한, 술법을 볼난지, 모로거니와, 정답을
바를 맛당히 심상호, 데 조스 회의서, 심비나 되겠시니, 어렵다, 드른즉, 본춘중
양구의, 유형고 본보기된 드는 처쇼와, 추밀각, 두 곳이 잇다호니, 인비가, 무슴 계획으로 은 밀호
게 춤복호야, 무섭고 두려온, 독슈단을 부리라느니, 비밀호속을, 여어 보지 못호
였고, 아즉 본바는, 과히 관계가 업고, 눈에 거친물건을, 못보왔거니와, 그럴물과
물의, 품위를 말호느호면, 오대주에 상등이 될너라

쓰기를 다호야, 도로 슈대속에, 니코, 칠상에 누어, 전전 불미호다가, 우연히 잠이 들
어, 잠꼬새을 호엿더라

좌선학스, 좌선학스,

불으다가, 삼작 놀나 나리나 나리

데 룩장 탄산와스의, 바다

약한의, 러관주인은, 호과부라, 원리서서 사름으로, 두니 의어 린아 들하나를 다리고,
버리호차로, 슈천리를 표박호야 단나다가, 이곳에 와서, 탄광역부로, 품을 팔아, 세
식구가, 먹고 살더니, 스년전에, 탄광속에 들어 갔다가, 광이 문어져, 슈십명역부가
치여 죽는중에, 갓치 죽어, 송장도 찾지 못호여, 그속에 영장호고, 과부와 고아가, 실
려러진, 뒤옹박이 되엿더니, 이갓치 법명이 각박호, 런털춘에, 오하려역부가 역스호
다가, 죽으면, 그 유족을 차져, 홀금을 주는 법이, 잇는고로, 이과부가, 매년 삼십원홀
금을, 바라고 살더라

이적, 그과부의 아들이, 열세살이 되고, 일호은 극아이라, 탄광에서, 풍혈역단느, 소
임으로, 미삭돈품을 엿으니, 그즈모는, 슈천리타향에, 짜을 일코, 처량호 그림자를
디호야, 설코원호호는 물을 씻고, 심회를 여제호야, 그아히를 어르만져, 회포를 위로
호느니라, 극아나날마다, 탄광맛히 잇다가, 집에 도라오랴면, 길이 멀고, 왕티에 피

곧이즈심호지라, 역인들이, 불상히 녀여, 공론하고, 탄광밋히, 석탄을 싣고 드나드는, 구루마를 밤이면, 직히는 소임을 마련하야, 극아로 낮지면, 풍혈에 안저기 폐하고, 밤이면, 구루마껏히서 지게하니, 날마다 탄광으로 오로니리는, 고성이 업고, 또 약간 돈푼을 엮으나, 주야에 두가지 소임을 맛하, 룩심장후암세계에, 드러, 천일을 못보고, 다만던기등만, 쳐다볼뿐이라

공일이 되면, 그즈모가, 식벽에 이러나, 물을 쓰려 소다를 타고, 그아히오면, 머리도 감기며, 낮도 씻기려하고, 기다리니, 이아히 밤낮 열느 홀을, 굴속에 든 피양이 갖치잇다가, 세상밖게나와, 청천벽일도 보고, 함을며, 저를즈이하는, 어미를 불지라, 희々 락々하야, 우둥々々 뛰여오는지라

그즈모가, 문에 의지하였다가, 마조나와, 붓들고, 드러가, 즈두지 죽을 목욕시켜, 락자은 옷을 입히고, 겸상하야, 더운 밥을 갖치먹고, 위로하니, 그즈모의, 정리는, 짐짓사름을, 감동할너라

극아— 현성벽이 잇서, 버레잡기를 도화하야, 낮후에 나가, 석양씩면, 티둥우리에 가득잡아니고, 도라와 희롱하니

그즈모는, 잠시라도 다시 보면, 반겨서, 천신만고를 다 잊고, 인간즈미는 이쁜인가하더라

약한이, 공장에 잇서, 슈월이 못츠되, 집역에 근신하고, 의스가 출중하야, 데일드인 이되고, 출중에, 야학교가 잇서, 각공인들이 밤이면, 산술과 수학을 련습하니, 약한의, 총명지질이, 그전부터 잇것흔, 학문에 의은지라

동학하는 제인과, 쇼위교스는, 약한이, 처음비오는 학성만, 녀여, 낮비보다가, 일취월장함을 보고, 해를 뒤흔들느모양은, 약한이, 보기에 참, 가관이러라

각구에서, 각기 스무를 조사하야, 중앙구 추밀각에 보고하야, 포장을 주니,

제삼십륙구, 오만철천구 백삼십팔호, 물건부터는 공장, 데일드영부, 약한, 년은 삼십세,

우는, 희월이, 특별호지조잇고, 물리에 련속하니, 본구중에, 궂출인물이요 출중에 만이 엇지 못할 자인고로, 포장을 증여함

하였더라, 호로는, 주일인디, 광중에 서도라오는, 극아를 보지 못하겠거늘, 약한이 심중에 의아하야, 녀주인의 창을 향하고, 극아왔소,

녀주인이, 슈석이 만면하야

오늘도, 일찍이러나, 저오기를 기다리되, 지방열점삼십분이 지나도록, 종적의 묘연하오, 제미양일찍이오고, 한번도 필항지안더니, 오늘은 무슨일이 오닛가 (약한) 오늘, 나도 한가하니, 주인을 위하야, 극아의 소식을, 탐지하야 보리다,

약한이, 공장에 잇서, 슈월이 못츠되, 집역에 근신하고, 의스가 출중하야, 데일드인 이되고, 출중에, 야학교가 잇서, 각공인들이 밤이면, 산술과 수학을 련습하니, 약한의, 총명지질이, 그전부터 잇것흔, 학문에 의은지라

동학하는 제인과, 쇼위교스는, 약한이, 처음비오는 학성만, 녀여, 낮비보다가, 일취월장함을 보고, 해를 뒤흔들느모양은, 약한이, 보기에 참, 가관이러라

각구에서, 각기 스무를 조사하야, 중앙구 추밀각에 보고하야, 포장을 주니, 제삼십륙구, 오만철천구 백삼십팔호, 물건부터는 공장, 데일드영부, 약한, 년은 삼십세,

우는, 희월이, 특별호지조잇고, 물리에 련속하니, 본구중에, 궂출인물이요 출중에 만이 엇지 못할 자인고로, 포장을 증여함

하였더라, 호로는, 주일인디, 광중에 서도라오는, 극아를 보지 못하겠거늘, 약한이 심중에 의아하야, 녀주인의 창을 향하고, 극아왔소, 녀주인이, 슈석이 만면하야

오늘도, 일찍이러나, 저오기를 기다리되, 지방열점삼십분이 지나도록, 종적의 묘연하오, 제미양일찍이오고, 한번도 필항지안더니, 오늘은 무슨일이 오닛가 (약한) 오늘, 나도 한가하니, 주인을 위하야, 극아의 소식을, 탐지하야 보리다,

하고, 즉시려관을 나와, 단광문밖게가보니, 각공인과여부들이, 다흐터지고, 광문
직히는광직이, 의즈에안저조를거늘

약한스만철천구벽이호의극아가, 오늘시벽에이광중의셔나왔다

(광직)안나나왔소

(약한)그러면이광에, 문이이뿐아니라, 또다른문이잇는가

(광직)업소, 그러나극아—미양쥬일날에, 집에가고, 또다른공인보다, 흥상면
저가더니, 오늘은나오는것을, 못보았시니, 괴이흥오

(약)내이제오기는, 극아를찾고져하나, 내광중에잠간드러가보면, 엇더할가

(광)못흥오, 드러가라면, 스무쇼에가서, 광장의허락을, 밧어야흥오

약한이, 흥일업셔, 스무쇼를찾져, 광장을보고, 이스연을말하니, 광장이, 역시저선
흔사름이라, 약한의말을듯고, 측연흥야이로되

이아히를, 니알거니와, 드러니, 파모의게지성이라하니, 니그티와한가지, 광중
에드러가, 츠져보리라

흥며말이, 간츄흥지라

(약한)선싱에게, 흥의동이잇는고, 광중스를모르니, 흥의동이업스면, 미오곤란
흥거소

광장이, 흥의동들을니여, 논아가지고, 광중으로드러가니라 흥의동은, 쥬석으로상조
를인들여, 그속에공기를

저축하고, 가족으로, 뒤설터가치민드러, 양편쪽으로, 상조중계부치고, 솟춘, 한터합흥야, 흥을거를
민드러, 입의물고, 쓰코에게어는가족줄기잇서, 풍속의공의를마시면, 다른독기가, 범치못흥나라

약한이, 광장과, 흥의동들을에지고, 광중으로드러가니, 처々に던등이명랑흥야,
흰낮갓더니, 슈십장을드러가니, 물식을분변치못흥고, 여간전등이잇스나, 불씩치,
청식을씩이고, 찬괴운이돌며, 음참흥지라

쪽이잇는지라, 약한이, 집어보고, 광장을뵈이며

곳쓰가, 이곳에잇스니, 극아가, 덩녕광밧히잇스리다, 니전일에극아—을적에,
이곳쓰신은것을여러번보았소

(광장)그러면, 어셔츄져보즈

흥고, 각쳐로, 두루단이며, 츄되, 괴척이업고, 이놀은흥식흥는날인고로, 광중에무
러볼터도업는지라

광장이, 괴의셔흥야히를만나니, 약한은, 모로논아히라

(광장)네오날아나나갓시면, 극아를보았느나

(동조)앗가극아가, 전등과상조를가지고, 급히져곳으로가더니다

(약한) 극아가, 미양집에 오면, 버레좁기를 도화하더니, 필시 버레를, 쫓아가도다
고며 압서서, 드러가니, 지척을 분간치, 못할지라

(약한) 에가 어더오

(광장) 이곳에, 약취와, 독귀가 잇스니, 가지말나

(약한) 엇더할것, 업소

광장이, 만류하며

향리, 여괴석탄이 난다 할야, 각처 광종길들, 이리로 모았스나, 죽양스의 말이 문어
결념려가, 잇다 할야, 죽시도 로봉 폐할곳이니라

(약한) 광종이 심히 괴이하니, 내, 괴이히 닳을보겟다

향고 면져 드러가, 열거름을 못가더니, 광장을 도라보며

선성 두등나논줄, 모로겟소

(광장) 글세, 머리가 앓득스스 할야, 들슈업네

(약한) 이속에, 인적이, 오리 싣치고, 탄산와스가 쓰여 그러하니, 흙귀등을 쓸밭게
슈기 업소

향고 량인이, 각스크에 세이며, 입에 물고, 룩철장을 드러가니, 홀연 등불이 풀은곳에,
누은사람이 보이거늘, 약한이, 급히 나아가보니

습흐다, 극아 손을 꼽고, 다리를 썩어, 숨고 업는지라

떠메고, 광빛게 나와, 급히 의스를 불너, 뵈이니 전혀 탄산와스의 독이라, 죽은지 슈시
간이면, 아모리 편자이라도, 살너지 못하니

출혹향고, 가련하다, 극아 - 썩신 세계에, 귀귀 되었시니, 그즈모의 정경이, 엇더하
리오

약한이, 극아의 죽임을 초져, 렬렬촌공디에 못어 쥬고, 단갈을 세워 표하니, 일로하여
촌중에 명에, 더욱 장한지라

잇은 날 약한이, 공장에 들어 갈츠로, 삼십륙구사즈방에, 즈괴 호슈를 닮에, 상즈가 온
디 표와 맛쳐보니, 전에 업던 조희 쪽을 보쳤는디, 썩스되

데삼십륙구, 오만철천구 백삼십팔호, 일등공인 약한은, 본일오전 십점중에, 중앙
구문외에 잇서, 기다리라
할앗더라

데철장 중앙구

련철촌의, 중앙구라 함은, 사름으로 말함지면, 곳외 슈와 갖흐니, 다른 각구의, 크나
적으니, 뜻고 보논 일은, 동히 중앙구에 보고 할야, 중앙구의 잇서서, 전촌의, 천가
지만가 지를 다 올되, 중앙구에 출입이 엄밀하기예, 여관 두목이, 석달의 호변이나

반년의 혼변, 밤게 나와도, 듯고 본일은, 이밥스게 되지 못하기로, 약서 혼싸름으로 위인은
중양구일을 한가지도, 알지 업고 중양구에, 쌍속으로, 렬로 노아, 외구에 동호야
시니 비밀이, 회의 흘셔면, 급형렬거로, 쌍속으로 왕리하니, 엇던사람을 불너 드리며,
무손일을 의론하는지, 을 슈업서, 그심모래게는, 우등가는 정람이라도, 드러가다가,
걸너들면, 철산디옥이나, 염라대왕을 불쌍아라, 하는 중양구라

약한이, 중양구의, 이러함을 의이 듯고, 중양구의 문에 이르러, 가심이 덜녕덜녕, 터
럭쑥시, 썸빛썸비스며, 혼연기투기도하고, 혼연무섭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문것히 밧속다아셨더니, 머리에 투구 갓흔모즈쓰고, 허리에 단총과 장금찬술평들이,
약한을 기다린듯시, 니다라겨들랑을 썸들고, 혼고간 갓흔집에, 미러드리치고, 문을
락닫치니

약한이, 겁결에

나를, 가두는가

홀지음에, 안문이 열니는지라, 조세보니, 아모도 업서, 쥬져하다가, 드러서니, 문이
발셔닫치고, 또 안문이 열니거늘, 또 드러가니, 또닫치고, 또 열니는지라

이러듯, 몇십간을 드러가되, 안팎문이, 일시에 열날적은 업고, 모도 혼편얼니면, 한
편은 닫치더니

홀연, 큰문이 동지하고, 혼사람이, 약한의 피를 찻조, 인을 쳐서 주고, 아모말이 업스
니, 정히궁금호든츠에

흰, 비단호복을 너여, 약한의, 두눈을 싸서, 질신동이더니, 두사람이 또 썸들고, 다름
박질호야, 이리갔다, 더리갔다, 바로갔다, 모로갔다하더니, 밧을 쌍에 북칠시업고,
눈은 감々, 귀박휘에 바람은 후々치며, 몸이 어디로가는지, 모로갯는디, 방불히 총々
디돌을올나, 방으로 드러가는듯하더니, 그제야, 눈의 쓰인것을 벗겨노으니, 정신이
황홀호야, 어릿어릿들너보니, 몸이 혼강 당안에, 잇는지라

정면에, 큰철판을 다라시며, 마로가온디, 고죽상을 노코, 산술제도등을, 버렸시며,
밧글보려하니, 스면으로, 류리창을 천장밧히, 밧삭치어너여, 공괴만쏘이게하고,
키닫는디는 혼고도 업시니, 밧고형편을 을 슈업더라

조공이더니, 머릿것히, 문여는 소리느더니, 두사람이 드러와, 의즈에 안지며

(호사름) 전일, 삼십륙구보고서에, 학년이 제비중쥬여난다하얏기로, 면시호야,
진위를 알고저하니, 네과연그러하면, 본촌쥬형고의, 직원을 식일것이니, 이두어
문대를, 디답호라

호고슈학, 리학, 화학, 등문대를 너거늘, 약한이, 낫낫치응답호의, 밧치각학교우등
싱도가, 혼말연습호든, 과등을 열종에서험호든, 명민호고속호지라, 두사람이, 서

로보며, 머리를 쓰덕 쓰덕하니

(또 혼숨름) 네시방 두점을 한하고, 이그림을 그리라, 우리잠간나갔다, 곳오리라
하고, 조의 두권을 노코, 나가니, 그그림은 증의 수관의, 본보기문데라

이점종을 저나, 두스름이 드러오거늘, 약한이, 그그림을 드리니, 양인이, 보고, 칭찬
하다가, 약한의, 눈을 또 쓰이고, 본구총리방에, 쉴녀간다

(총리) 이제너를, 이추형고제도실의, 직원을 식이니, 네이곳에, 법령규칙을, 잘
지킬지어다

(약) 삼가봉헌하려니와, 다만법령규칙을, 자체모르노이다

(총리) 데일은, 네봉직하는제도실외에, 촌보라도맞게나가지못하고

데이는, 이곳에일정한, 군률로종수함이, 만일 수호라도, 위반하면, 곳엄중을벌
을, 당할거시오

데삼은, 본구의듯고보는일을, 밧갓사름에게, 루설치못을것이오

데스는, 너의왕복서신을, 총리방의와서보이며, 다만네, 가간서출이나, 상동하
고, 기외는일절금단하리니, 네이네가지를준봉을진된, 곳오날부터, 데도실에봉
직하리라

약한이, 마음의는, 살로중죄를짓고, 감옥서에갓차나, 다름업서되, 업으로

그리호오리다

(총리) 그리하면, 오날, 곳추형고네제도실에, 봉직하되, 네거처는쳐소는,
싸로잇고, 네식물은상등으로공궐할지며, 네의, 후가지고온, 형구가어디잇는

나

(약한) 여의, 일용제구가잇스오면, 스쇼흔형구는, 밧게두는것이, 무방호오이
다

그날저녁부터, 약한이, 쳐쇼에잇서, 일등일정을모다, 총리방으로서, 규정하고, 후
한가하면, 다른제도원과, 음악창가로, 심신을활발하며, 후장서실에드러가, 서적
을마음티로써아니여, 션념하고, 기외의는, 제도하는공부에, 잠심을뿐이러라

약한의, 스실밧게, 렬란간을들니, 촌보라도넘어나가지못하고, 문틈으로보면, 구
름속하늘맛히닫는듯호, 접이잇스니, 소위추밀각이라, 그속에쌍속집이잇서, 전세
계에듯지못호든, 살인제구를, 감초앗다호며

또각중에, 괴밀살이라호는집이잇서, 집안집밧게, 모다렬판으로, 벽을막고, 강렬
로문을다라, 엄밀하게잡가, 불이부혀도, 타지못하고, 물부어실들업서, 견고하
다, 이등동관제안의게, 드른말이라

처음료량은, 이곳에드러오면, 임의로, 놀고단나며, 후추밀각의일을, 알싸호엿다

니, 달이 팔을 다 동인 듯 밧게 나가지 못하고, 눈썹 고귀 막은 듯, 밧갓 소문도, 들들 슈업
는 지라

심중에 울적하다 가, 다시 생각하되

만일 추밀각의, 비밀스를, 일년에 모르면, 삼년이오, 삼년에 모르면, 오년이오, 오
년에 모르면, 십년이 십년 삼십년이라도, 괴어코, 너목적을, 달하고 말니라

하로는 약한이, 제도에 참착하더니, 하인이 엿조오되, 오날 총리방에서, 던화로 선성
을 청하느이다

약한이, 하인을 짜라, 총리방에 가니

(총리) 오날 인비군이, 명령하되, 추밀각의 직원이 꺾혔으니, 추형고에, 제일등
제도원을, 같하여 보되라 하얏기, 너 생각건디, 데일등제도원은, 네가 감당하겠기
로, 천거하얏노라

약한이, 마음에 감당치 못하느데 하고, 밧쳐디 답지 못하야, 회석이 만면함을, 써 닷지
못하니

총리는, 약한이, 츄츄승츄되는 것을, 도화한다 하고, 허우시며

각하의게, 치하하노라, 이로 좃츠, 각하가, 디위를 엿어시니, 우리들도 다른날, 각
하의 힘을 입으리라

어서 추밀각에, 가보시오

약한이, 평성골돌, 흥든 추밀각을 줄디에, 보게되니, 심신이 비월하야, 전일 중앙구
에, 처음드러 올썬 보다, 몇갑절이나, 더 무섭고, 더 도흔지라

어느결에, 추밀각에 하에, 이르니, 굉장찬란하, 누가이 눈에 현하하더니, 다리 밧히,
우루스썬 천동소리, 갓치나며, 열두층 계가 뒤놓는 지라, 심중에 헤오되

쌍밧렬도가 잇다더니, 화륜거가, 지나가느 보다

하며, 총계에 올라, 데일실을 보니, 장벽창호가, 모다 붉은 빛이요, 데이실에 이르니
모다 검은 빛이오, 데삼실에 드러가니, 보라 빛이라, 다른 좁식은, 일점도 업고, 전면
은방방이 금박으로, 록석을 꺾드려, 삶이고, 중앙에 대리석으로, 탁자를 민들어 노
코, 그압교의우에

하사름이, 일이 만보석물썬리에, 녀송연을 박아, 연고 조옥하 개 뛰이고, 안젧서니,
이곳, 철세계왕이오, 련철출주인이오, 전야라 부대 학교슈, 화학스 인비군이이라

인비가, 약한을 보고, 잠깐 머리를 숙인 지만 지하고, 다른 사람을 보며, 슈작하듯 하다
네가, 추형고제도원이냐

(약한).....

(인비) 어제 너의, 제도를 보니, 즐되긴 즐되얏더라 만는, 그러는, 증고사관외에

또 무엇을 잘 하느냐

(약한) 그 외에, 약간 비은계, 잇스오나, 시험하시면, 티답하오리다

(인비) 네 창포, 화과 등도, 아느냐

(약) 렬속하지는, 못하오나, 평성도 화하야, 발명함도 잇스오나, 대방가 안목에, 적합할는지오

인비가, 그제야, 머리를도리켜, 다시 못는다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하야, 이 대포의 도식을 그려라, 너 곳, 너로 폭발하에 처여 죽은, 손내의, 대를 식히리라

하면서 속으로, 혼조말이

앗깝다, 너도 죽으리로다

데 팔장 비밀스를 알면, 죽이는, 인비의 틀령이라

약한이, 추밀가의 제도스되야, 날마다 인비 좌우에 잇서, 창포 등 문대를 연구하니, 신묘술에, 의스가 호회하야, 그 꾀진흔곳에는, 인비 저탄도하고, 항복하느니라

이럼으로, 이지중지하야, 잠시 도셔나지 안이 하고, 점점계 밀하야, 금슬성황이, 손가락 놀리는 디로, 음향절주에, 청탁고져가, 맞는듯하더라

하로는, 인비 약한과, 추밀가에서, 술을 티하야, 룩산포림이, 량조하고, 술이 열근하

야, 밧고 초기로 슈작하다

인비 우스며

너 근일에 혼조 생각하니, 사망세상에 면보를 못먹고, 뭇주를 못마시는 인종이, 부지기슈라, 내, 일본바다 근처에, 데이 렬렬촌을 짓고, 평성정력을 다하야, 무등은, 살인공던구를 지어, 구만리 세계를, 일어난 일을 통을 믿들고, 도처에 면보릭주로, 일용동상하는 물품이, 되게 하얏시면, 조네 갖하니까, 어느 디방에 슬던져, 면보릭주 업는거정을, 아니 할거시니, 장하지 안겠나, 장하지 안겠나

(약) 참그려 할진던, 장하지 마는, 큰말뿐이지, 전 세계를 잇지일이 만일을 통을, 믿들 슈인노, 노, 내성각에는, 구라파하디방도, 이런 망념을 못하깃쇼

(인비) 네일이 만의, 일통이, 못되겟다 하느구나

약한이, 이세 밀슈흔 잔을 가득 부어 들고, 먹는데, 인비의, 이 말하느니 양을 보고

약한아, 손의 든 맥주를, 흔싹히 쭉 드리켜고, 잔을 티노으며

그릿소, 너성각에는,

(인비) 네 소견의, 덩녕그려하면, 그런싸 죽을, 말하여라

하면서, 눈에 불덩이가, 나는듯, 상열이 되거늘, 약한이, 못보는데 하고, 증용이 하느니 말이

다, 싸움이, 잊지요, 오날々, 일이만과원슈는, 법관서가 아니요, 그절치부심하야, 한번갑호라흔지가, 일조일석이 아니라, 드르니, 근일군비를확장하야, 일이만멧 갑절이되고, 전일라파룬데삼이, 피하기는, 방장일이만병비가확장하고, 법령이, 밋쳐되지못하야, 실괴하얏기에, 산당의서항복하고, 파리를썩앗것지마는, 시방은, 그러할리만무하고, 또량국의, 평등함으로말하면, 법국사름하나히, 일이만사름썩식넛식을, 당할지니, 나는서사름이거니와, 영국의유식하사름들 도, 평론이이러하오

인비가, 얼골이, 뷁그락푸르락, 심줄이, 벌썩벌썩쌈이소스나며, 금방, 살인할것갓흔지라

(약한)용서하시오, 니가주후광담을하엿소

인비조곰신괴가, 화평할듯하나, 말은아니하고, 약한의, 말만드르려한다

약한은, 술김이요, 님든말이라, 시작할김에, 인비비래를, 썩으랴고, 분만도도아, 말이또런방나온다

내말이허탄한말아니지요, 법국이, 군신상하업시, 골수에박힌분심으로, 피군의모양을그리고, 설쳐놓는노리를, 지어일심단테로, 썩혜누어담을맛보느니, 전일피함은, 도로혀법국의병졸과게를, 발달하게, 축박하바라, 우리가, 추밀각에

잇서, 전심치지하야도, 제계에절티흔, 대포를못지엇고, 법국은가룬투과의서, 열마금신괴흔, 대포를짓는지알겓소

인비그제야, 말을시작한다

제아모리, 신괴흔대포를, 짓기로우리는져에서좀더흔대포업설가

(약)군은, 큰말만하지마오, 우리괴썩, 지은디포가, 이비밧게더되오

인비가, 참지못하엿

이비이비, 네말이올라, 네료량의, 니가능히이비되는데포나, 짓는다하느냐

(약한)설혹이런대포를, 짓기로엇저더법국의, 경년열세도록고심갈력흔, 괴게를당하며, 또우리가이비되는데포를, 지으면, 법국은, 스비오비를, 지을지엇지알쇼, 시방우리형편은, 이런대포짓지도못하엿고, 완전흔괴게업시니, 이것을가지고, 법국을더적하랴면, 비상이곤관하리니, 생각하여보오, 생각하여보오

인비듯다가, 생각하여보라는소리에, 괴가막혀, 벌덕이러서며, 팔을썩리치고, 문박그로나가더니

이리오게, 이리와

약한이, 마지못하는테하고, 싸라간다

흔곳에이르니, 전면에, 큰목상조가, 놓기철탐찰척되고, 문이업는가하얏더니, 인비

먼저방모듬이로, 도라가더니, 엇더케하야, 문을여는지, 약한은, 밋쳐못보았더라
목상조의, 쌍바라자가, 홀연열리며, 세련이것처더니, 홀길이드려다보이고, 대리
석으로총계를싸아, 빅설갓치, 눈이부시느니라

인비를, 싸라점々되려가니, 도처에, 문을잠갔는디, 인비낫々치외로열며, 드러가
니, 디행이도로점々놓하지고, 십여문을지나, 십여청계를올나, 상々총에이로니,
추밀가속씩이에, 왔더라

인비 약한을살고, 이곳까지오되, 아무말도업더니, 홀연약한을멈쳐세우고, 가르
치며

보아, 보아,

약한이, 숨혀보니, 덩그러케, 산덤이갓흔물건이, 입은륙철척이나되야, 어응홀디,
예스사름은고기도, 속이지안코, 드나들겟시며, 밋히는강털거로, 밋쳐노코, 또그
밋히는털로싸라, 두박휘언치엿시니, 조고만아히라도, 홀손으로고동을들면, 다
라날지라

약한이, 보고혀를두르며,

허々크고,

하면서, 인비를보고, 룡총을취인다

이대포가, 치는심이, 열마나호오

(인비) 스오리밧게, 너즈늑게, 털팔을치면, 석부스럭이되느니

(약) 멀이가는힘은.....

인비, 실적우시며

아마, 삼십영리는가

약한이, 인비의, 말눈치를, 모로는레호고, 놀나며, 삼십영리, 삼십영리, 그것총대
단호오, 그러나, 엇던화약을쓰오

(인) 내예다가, 화약면을쓰라호노니, 화약면의독고는, 심상화약보다, 스비는되
고, 내가다년연구하야, 믿든화약면은, 또심상화약면보다, 오비는되죽, 모도가
십비는되겟서니, 엇더호고

(약) 그러면, 상품가털로, 이대포를짓고, 이런밍털은, 열초를쓰면, 스오방안에
포신이파상하야, 열방이못가서, 아조버리지안겟소

(인) 션칭은, 그만두오, 나는이대포가, 첫방에파상될줄로아오,

약한이, 이씨는, 참놀나는말로

그러면, 이대포짓기에, 열마나, 지력이드렸쇼

(인) 이하나에, 일빅만원은드렸쇼

약한이, 더욱 놀나며

그러면, 이대포항방노키에, 빅만원황금을, 공연히 허비함오

(인) 선성도, 썩함시오, 엇지구々호, 빅만원을 앓기고, 더것에 닥치는곳에, 멧역 만원손히를, 모로시오

(약한) 그러나, 이제 평성함을, 다드려 세계에 업는 대포를, 자엇시나, 불과 유형고 예, 엉덩호 구경거리나, 되얏자, 엇다가, 썩보아야, 아니함오

함는말이, 밋쳐 못밋쳐, 인비부화가, 또이러는다

엇다가쓰느냐, 엇다가쓰느냐, 내귀위즈네를, 괴아지아니호바에, 낫々치되이기로, 엇덜게잇기나, 즈네는, 날들싸라오게

상총의셔, 니려와호곳에, 또이르니, 이곳에는, 등글고, 큰등을 무슈히 싸앗거늘, 약한이, 생각함되, 필시 신발명호, 화포에 소속품이로다

함고갓가하가, 즈세볼씩, 인비, 가르치며,

보았나, 이거슨대포에, 탄환일세,

약한이, 뒤경호야, 갓가히가셔 두루술하니, 탄환의, 기리는륙척이오, 부페는삼척이라, 전신을, 강렬로부어 짓고, 입은, 남으로봉호 엇시며, 또강철관으로, 밋호싸랏는지라, 약한이, 또보며, 또실씩호야, 심신을정치못함에, 정총중, 나듯호는지

라

인비그괴석을보고

(인) 네이것을, 알겠느냐,

(약) 몰나, 니알면, 무엇함나, 이닥지크고, 긴탄환을, 무엇에썩

(인) 안일세, 이탄환이것호로보면, 대단히무거운듯함나, 그속은전공이오, 썰티에, 그속에류동탄산을지야, 탄환이, 썩쳐닥치는곳에, 탄산이터져, 와스가되야, 공기중에흐러지면, 주회스빅장안에, 어름런지가되야, 세쇄호동물이라도, 다어러죽고, 스름이독호와스에, 괴절호야죽는고로, 니평성공부호야, 즈득호묘술을, 즈랑호건티, 포탄의힘은직접으로, 스름을죽이고, 또와스에여독은, 간접으로스름을죽인죽, 이두가지로, 살인호는호력을, 발달호엿노라

함면서손바닥을치며, 방약무인함다가, 또약함을보며

네싱각호여보아라, 이제호낫탄환의폭력이, 근빅보안에인총을, 죽일지니, 종횡만보되는너른도회에, 이탄환빅개를노호면, 슈만가호에, 일도부가, 순식간에, 탄산와스, 바다가될지라

내, 또이런리치를, 경험호얏시니, 년전에의티리국에류람호제, 파괴지방에슬싱동, 살성등은탄산와스가, 썩여개나피나, 그안에, 을, 보앗고, 드러가면죽스호는고로, 슬성등이라호